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 나부터 알아야 삼라만상 다 알수있어

### 15면에서 계속

**답** 활나에 일어났다 활나에 사라지고 또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게 마음인데 어디에 붙잡아 두시려 합니까? 흐르는 물은 흐르게 두어야지 그걸 잡아 뭇수가 있겠습니까? 흐르게 놓아주세요. 일어난 접아두는 걸 말하는게 아니라 놓아두는 걸 말합니다. 옳으니 그르니 맞스니 틀리니 따질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딱치는 대로 놓고가라, 말하고 가라 하는 겁니다. 그럴때에 걸리지 않으면서 무심 아닌 무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놓고 관하는 걸 배우세요.

### 몸이 잘 안따라 줍니다

**문** 스님을 오늘 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자꾸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이러는데 스님 조금만 용기를 주십시오.

**답** 공부하는데, 몸하고 마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이몸이 아프면 마음이 허황해지고 그렇게 되지만, 진짜로 믿고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아픈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

### 옳으니 그르니

### 따지지 말고

### 딱치는대로 놓으세요

### 그때 걸리지 않으면

### 무심아닌 무심됩니다

### 진정 즐기고 싶습니다

**답** 속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요, 속이는 놈도 나요 속는 놈도 나이지 따로 있던가요? 모든 건 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데 전지에 먹었던 생각이 입력이 되었다가 수시로 술술 풀려 나오니 나오는 구멍도 거기요 드는 구멍도 한 구멍 거기입니다. 그러기에 속는다 속았다 하는 그것까지도 놓고 가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그 속았다든 타령을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 속이게 하는 것도 주인공, 속았다는 것도 다 주인공 몫이니 내가 말아라 하고 놓고 가세요.

### 재가자도 깨칠수 있나요

**문** 1. 재가 불자도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요?

2. 기독교 신자들도 죽은 후에 영가천도가 가능한지요?

3. 왜 무속인들이 신성한 절에서 자신의 신으로 부터 영감을 얻으려 하나요?

4. 굿당에 부처님이 모셔진 것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제가 잘못 인가요?

5. 집에서 매일 참회 기도등을 할려면 어떤 준비와 절차가 필요합니까?

6. 직장생활을 하면서 불교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좋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답** 1. 물론입니다. 누구나 부처될 가능성이 있고 태어났으니까요.

2. 그렇습니다. 불성은 누구나 다 갖고 한마음엔 따로 이름표가 없습니다.

3. 어리석은 탓이지요. 그래서 내가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잘 것이요 없다면 빼앗으리라 했습니다. 빈집엔 온갖 짐승, 벌레들이 제멋대로 드나들게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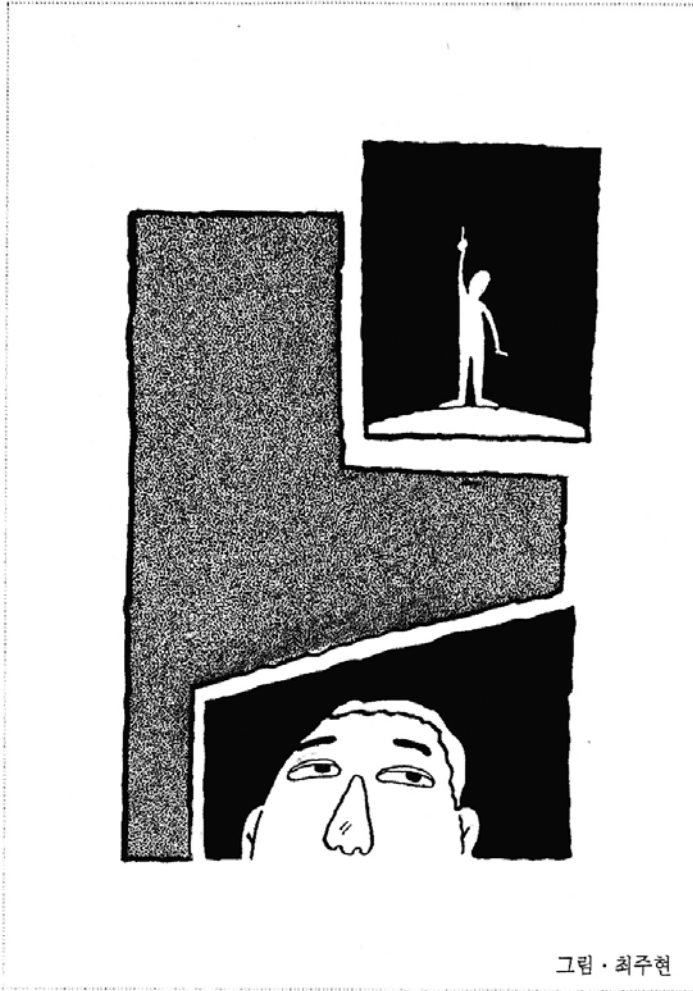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생각으로 큰스님 마음을 담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큰스님 마음속을 들어가서 그렇게 본받아 가지고 나온다면 큰스님처럼 마음을 쓸수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스님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답** 심성통신을 아십니까.

정것줄과 정것줄이 맞닿아야 불이 들어오듯이 한생각이 활나에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자신이 믿지않고 몰라서 그렇지 일체는 다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지를 건지려면 돼지 속으로 들어가고 소를 건지려면 또 그속으로 들어가 돌이 아니게 한마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너, 나를 몰로 보는 한 심성통신은 요원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체를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말기라 하는 겁니다.

### 우주 법계 다 바친다는 뜻은

**문** 공부를 하다가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진정 사대오온 우주법계 개공을 문 없는 문을 열고 더불어 다 바치오리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답** '나'라고 할 건 하나도 없다. 실오라기 하나, 건덕지 조차도 없으니 깨끗이 설갯이를 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쯤만 아세요.

### 남들과 조화롭게 살고 싶어요

**문** 이 세상 만물은 마음에 의해 생겼으며 마음에 의해 변화를 하는 것이며 그것이 제 주인공과 들어아닌 한마

감로의 문을 열어주시어 법을 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의정이 간절하게 일어났다면 간절하게 놓고 관하세요. 주인공, 의정이 일어나게 한 것도 너, 답을 알게 하는 것도 너, 하고 놓고 관하세요.

내가 설명해줄 수도 있으나 내가 설명해서 알고나면 다음번 갈증은 또 어떻게 푸시렵니까.

### '자신을 쓰레기통에 버리라' 뜻

**문** 오늘 정토회관에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큰 감동받았었습니다. 자신을 꼬깃 꼬깃 접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라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주인공 너만이 이자리에서 한 티끌도 없이 완전히 죽게 할수있어 오로지 주인공 당신만을 믿겠어.

오로지 주인공 당신만을 믿겠어. 스님 사랑해요.

스님 사랑해요.

**답** 부처님께서 그러셨죠. 내 이 형상을 믿지 말고 각자 자성부처를 믿고 법을 따르라고 말씀입니다. 이 고깃덩이아 때가 되면 벗어버릴건데요. 뭘.

### 한마음의 도리 알고 싶습니다

**문** 스님의 법문중에 한마음의 도리라는 것이 자주 나오십니다.

한마음의 도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스님을 잘 친견할수는 없어도 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질문을 드릴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질문을 하고 나면 내면에서 답이 나오는 일이 대부분이지만 그 답은 제 수준의 답이고 큰 스님의 답은 훨씬 크고 한단계 이상 높은 수준의 답을 만나게 되서 공부하는데 여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문에 실리는 내용들을 열심히 읽고 참고하세요. 그리고 관하면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의정도 내 속에서 나오지만 답도 내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야 하나씩 터득을 하게 되지요. 매번 물어서 알고라 하더라도 그것도 습이 됩니다.

남이 떠다주는 물은 한번 목을 추기면 그뿐이지만 내 샘물에서 내가 길어먹을 수 있어야 세세생생 목을 추고 남에게도 줄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해 보세요.

### 마음으로 귀신제도하고 파오

**문** 스님께서 귀신들린 정신이상자를 제도하실때에 컵을 들어보시며 마음으로 아름다운 국토를 그려 보이셨고 실제로 그 귀신은 그 국토를 보았고, 결국 제도 되었습니까?

스님께서도 또한 실제로 컵에 그려보이신 국토는 존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제도방편은 하나의 나뭇가지이며 또한 그러한것은 마치 석존께서도 석존의 팔구명하나속에 운운주를 넣어도 넘치지 않는다는 법문과 같다고 이해해도 좋습니까?

**답** 꿈보다 해몽이입니다. 진실로 그러한 의정이 일었다면 스스로 답을 구해 보세요.

말끝에 알아맞히려 해서는 국 맛을 볼 수 없습니다.

# 흐르는 물처럼 마음잡지 말고 놓으세요 의정도 답도 내속에서 나와야 물리개쳐

기다가 그냥 맡겨 놔버리고, '네가 형성시킨 네 몸중이 내가 끌고 다니는 것. 건강하게 끌고 다니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하고 맡겨놓고 가는 길이지, 공부하는 데 뭐가 그렇게 걸립니까?

용기를 누가 주고 맡고 합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마음 공부하는데 대해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어떠한 게 닦인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재료로 알고 어떠한 게 딱치는 대로 놓으세요. 그것은 발전하는 데 지원적 인 용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해나간다면 정말 용기없지 않게끔 벌어들일 겁니다. 모두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란, 정말이지 역대의 조상들과 부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체험하고 나가다 보면 이 세상 살아가 전부 팔만대장경을 알게 됩니다. 과거도, 미래도 변치 않고 오늘도 공해서 돌아가는 이 자체, 이 진리가 그대로 팔만대장경입니다. 여러분, 모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살아나가는데도 어떠한 고통, 어떠한 병고, 어떠한 재난도 자신들이 모두 커버해 나가면서 '참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직선적으로 나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니 열심히 하십시오.

### 제자신에 너무 속고 지내오

**문** 제가 저에게 마냥 속는것을 즐기고 싶습니다 속는줄 알고 속고 속는줄 모르고 속습니다

이렇게 마냥 속아넘어가는 저를 때려잡고 싶습니다.

저의 계몽으로 진전도 없이 마냥 그 날이 그날인것같기도 하고 조금 나아졌나 싶으면 또 속아 넘어갑니다 이것을

런입니다.

4. 하루 24시간 행주좌와가 모두 참선입니다. 마음의 준비면 죽겠지요.

5. 생활과 불교가 틀이 아니니 따로 어떤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내 주위에 스승 아닌게 하나도 없고 내게 부딪쳐 오는 일치고 공부재료 아닌게 없습니다.

### 동료 어머니 화병 앓습니다

**문** 저의 회사 동료 모친께서 화병이 있어 치료 할 수 있는 방편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고민 끝에 한마음선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불가와 인연을 맺은지 10년 넘게 지내오면서 기공에도 관심이 있어 실제 얼마간 수련해 보기도 했고 해서인지 그 분이 기치로 잘 하는 곳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불자로서 한마음을 찾는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 나를 것 같아 스님께 여쭙어봅니다.

화병을 다스릴 수 있는 법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화가 나게하는 것도 울고 웃게 하는것도 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이지 누가 갖다주거나 어디서 오는게 아닐까요? 그러니 제 속에서 나온걸 대신 누가 어떻게 해줄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온 그 자리에서 되놓으라는 겁니다.

주인공, 화가 끊어 오르게 한 것도 너, 안 나게 하는 것도 너, 내가 해결해! 하고 놓아버리세요.

### '놓고 관한다' 무슨 뜻인지요

**문** 큰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속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아침 세면장에 가서 잠시 걸어둔 수건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값은 얼마하지 않는것이지만 아침부터 무척 짜증이 났습니다. 이 마음을 빨리 없애야겠다 싶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것이 주인공자리에서 나오는 것이니 없어진 것이 없다. 또 그 수건의 주인도 한마음이니 내가 잃은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고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평상시에 저는 종종 의식적으로 나 자신도 주인공자리에서 나온다고 스스로에게 일러줍니다. 근본자리에 놓고 관한다는 것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는 것인지, 그리고 의식적으로라도 주인공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큰스님 가르침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인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답** 참나참나에 놓고 관하는 겁니다. 처음엔 뭘 써야 하는 면이 없지도 않은

나 그러다보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거 자동적으로 놓고 관하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세요.

### 일새를 군사로 만드는 방법

**문** 스님 법문중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스님 법문중에 노간주 나무 일새를 모두 군사로 보이게끔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원의 영가 위패를 태우는 영가탑이 영가에게는 적멸보궁처럼 보인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일새를 군사로 보이게 하고 영가탑을 적멸보궁으로 보이게하는 것은 일체제불의 마음을 군사로 보이게 하여서 일체제불로하여금 일체 증생들이 이끌어 하는것인지요. 어떻게 관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님처럼 마음을 쓸수 있을까요.

**답** 죽어야 너를 보리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죽어야 보리라. 그래야 내가 나를 알고 나와 너가 돌이 아님을 알고 나와 너가 돌이 아니게 나뭇을 알 겁니다.

### 큰스님처럼 마음 쓰고 싶어요

**문**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큰스님처럼 마음에 쓰면서 살아가나 하는

을이라 우주 삼천 대천 세계와 연결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나와 하나로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갖져야 하는지요.

**답** 내가 죽어야 나를 포함해 일체를 간질 수 있습니다.

나, 나의것, 나의, 하는 그나가 완전히 죽지 않고서는 풀아닌 도리도, 풀이 아니게 나뭇은 순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놓고 또 놓고, 버리고 또 버리고, 말하고 또 말해야 하지요.

### '마음없는 중심' 대해 의정일어

**문** 저는 울산지원에 다니는 법우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뜻으로 준 반야심경과 뜻으로 준 천수경을 세번 읽다가 순간, "주장자" 또는 "마음없는 중심"에 대해서 간절한 의정이 일어나 아직도 모르기에 여쭙게 되었습니다.

### 한마음선원 신도회

가짜본 안목을 빚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737-0697)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buddhapia.com)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어서이군

